

# 구약논단

제 15권 4호(통권 34집) 2009년 12월 31일

정 석규(한영신대) 왕의 법(신 17: 14-20)의 이중적 기능 ..... 30

본 논문은 왕의 법을 다루는 신 17장 14-20절을 본문 자체에 대한 구조 분석적 해석과 전후문맥과의 관계를 통해 본문의 기능을 밝히려는 연구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왕의 법'을 다루는 텍스트가 왕에 대한 이중적 시각, 즉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에게 최고의 통치자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각도 제공함을 밝힌다.

Jung, Seokgyu Dual Functions of the Law of Kingship in Deut 17: 14-20 ..... 30

---

## 왕의 법(신 17: 14-20)의 이중적 기능

---

정 석규 | 한영신대

### 1.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에서 왕에 대한 규정이 율법의 형태로 표현된 것은 신 17장 14-20절이 유일하다. 신명기서에 있는 대부분의 법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언약법전과 대응을 이루고 있지만,<sup>1)</sup> 왕에 대한 법은 신명기서에만 독특하게 나타난다. 현재 형태의 텍스트에서 '왕의 법'은 왕정이 시작되기 오래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왕에 대한 시각을 전망하고 있다는 면에서 왕정에 대한 구약성서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구체적으로 '왕의 법(신 17: 14-20)'은 신명기적 역사에 있는 왕정과 연관된 다른 본문들과 많은 면에서 병행을 이룬다.<sup>2)</sup> 이러한 병행은 왕 또는 왕정에 대한 신명기서의 시각과 신명기적 역사의 시각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왕의 법'은, 비록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전 두루마리(Temple

---

1) 신명기법전과 언약법전 사이의 대응되는 구절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G. von Rad, *Deuteronom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6), 13쪽.

2) '왕의 법(신 17: 14-20)'과 신명기적 역사에 나오는 병행되는 다른 구절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정 석규, "신명기 17: 14-20의 Intertextuality를 통한 해석," 「구약논단」 제 11집 (2001년 10월), 49-70쪽.

Scroll)에 있는 '왕에 대한 토라(*Torat ham-Melek*: cols. 56: 12-21)'와 '왕에 대한 추가적인 법(cols. 57-59)'에 직, 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병행들은 신명기서에 있는 '왕의 법'이 신앙공동체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해석되었음을 보여준다.<sup>3)</sup>

구약성서의 한 본문은 그것이 에코되는 다른 본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해될 수 있지만, 그 본문 자체와 그 본문과 엮어진 전후 문맥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과제이다. 왜냐하면 모든 본문은 현존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며,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왕의 법을 다루는 신 17장 14-20절을 본문 자체의 분석과 전후문맥과의 관계를 통해 본문의 기능을 밝히려는 연구이다. 본문에 대한 주석 작업은 기본적으로 본문의 내용과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분석 방법으로 이루어지며(2장), 그 후에 본문의 전후문맥과의 관계 속에서 본문의 의도를 끄집어 낼 것이다(3, 4장).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왕의 법'을 다루는 텍스트가 왕에 대한 하나의 시각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힌다. 본 논문은 본문의 이중적 기능이 어떤 역사적이며 문학적인 정황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고 이후의 과제로 남겨 둘 것이다. 본 논문은 본문의 이중적 기능을 밝히고, 이러한 텍스트의 성격이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해석의 자유를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 2. 왕의 법(신 17: 14-20)의 구조 분석적 해석

신 17장 14-20절은 왕의 법에 대하여 다룬다. 이 본문은 재판에 대하여 다루는 앞의 단락(신 16: 18 - 17: 13),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하여 다루는 뒤의 단락(신 18: 1-8)과 그 주제와 내용에 있어서 구분된다. 왕의 법에 대하여 다루는 본문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본문(신 17: 14-20)은 왕에 대한 규정을 다룬다. 본문은 그것의 수신인과 주제에 따라 두 개의 대문단으로 구성된다. 첫째 대문단(신 17: 14-15)은

3) '왕의 법'과 성전 두루마리에 있는 왕에 대한 법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Seokgyu Jung, "Intertextuality between the Laws of Kingship in Deut 17:14-20 and the *Torat ham-Melek* of the Temple Scroll,"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vol. 51 (2007), 65-80쪽. 성서 안에 있는 본문들 사이의 관계(intertextuality)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왕 대일, "성서해석에 있어서 Intertextuality의 활용," 「구약논단」 제 9집 (2000년 10월), 9-38쪽.

2인칭 남성 단수 형태로 표현된 문학적 단위로 왕을 세우는 절차에 대하여 논한다. 둘째 대문단(신 17: 16-20)은 3인칭 남성 단수 형태로 표현되며, 왕의 직무에 대하여 언급한다.

A. 왕을 세우는 절차	17: 14-15
1. 왕에 대한 요구: 조건절	17: 14
a. 첫 번째 조건: 약속에 땅에 거주할 때에	17: 14a
b. 두 번째 조건: 왕을 세워야 하는 요청이 있으면	17: 14b
2. 왕을 세움: 귀결절	17: 15
a. 왕의 첫 번째 자격: 하나님의 택하심	17: 15a
b. 왕의 두 번째 자격: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7: 15b
1) 긍정적 표현: 네 형제 중에서	17: 15ba
2) 부정적 표현: 타국인이 아닌 자	17: 15bβ
B. 왕의 직무	17: 16-20
1. 하지 말아야 할 직무 3가지	17: 16-17
a. 말을 많이 두지 말라	17: 16
1) 직무 자체	17: 16a
a) 일반적 표현	17: 16aa
b) 구체적 표현	17: 16aβ
2) 직무의 근거: 야웨의 명령	17: 16b
b.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7: 17a
1) 직무 자체	17: 17aa
2) 예상되는 결과	17: 17aβ
c.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17: 17b
2. 해야 할 직무 2가지	17: 18-19
a. 직무 실행의 배경: 왕위에 있을 때	17: 18a
b. 직무 자체	17: 18b-19a
1) 율법을 쓸 것	17: 18b-19aa
2) 율법을 읽을 것	17: 19aβ
c. 직무의 목적: 야웨 경외를 배움	17: 19b
3. 왕의 직무에 대한 결론적인 언급	17: 20
a. 직무 자체	17: 20a
1) 첫째 직무: 교만하지 않음	17: 20aa
2) 둘째 직무: 명령에 떠나지 않음	17: 20aβ
b. 직무의 목적: 왕위의 날이 장구	17: 20b

첫째 대문단(신 17: 14-15)이 왕을 세우는 절차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sup>17</sup>(심/세우다)이라는 동사의 4회 반복을 통하여 알 수 있다(신 17: 14,

15x3). 이 대문단은 조건절로 표현된 왕에 대한 요구를 다루는 첫째 소문단(신 17: 14)과, 귀결절로 표현된 세울 왕의 자격에 대한 가르침을 다루는 둘째 소문단(신 17: 15)으로 구성된다. 왕에 대한 요구를 다루는 첫째 소문단(신 17: 14)은 2가지 조건 하에서 언급된다. 첫째 조건은 땅에 들어가 그 곳에 거할 때이고, 둘째 조건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첫째 조건은 연속적인 3개의 동사(들어가다, 소유하다, 거하다)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묘사한다. 둘째 조건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 하는 요구가 있을 때이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신 17: 14)되길 바라는 모습으로 묘사된다.<sup>4)</sup> 신명기적 역사에서 ‘모든 민족’ 또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 허락한 문맥 가운데 묘사되나(수 13: 1-6; 23: 12-13; 사 1: 1 - 2: 5; 2: 20-23), 현 문맥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암시도 없이 나타난다.

둘째 소문단(신 17: 15)은 세울 왕의 자격에 대하여 말한다. 이 소문단은 주요 동사인 **שִׁבַּח**(심/세우다)의 반복에 따라 두 개의 단위로 구분된다. 첫째 단위(신 17: 15a)는 하나님의 선택과 연관된 자격을 다루고, 둘째 단위(신 17: 15b)는 이스라엘의 백성 출신이어야 하는 자격을 언급한다. 즉 왕의 자격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선택과 아래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출신으로 백성들에 의해 추대되는 것이다.

둘째 대문단(신 17: 16-20)은 3인칭 남성 단수 수신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왕의 직무에 대하여 다룬다. 이 대문단은 긍정문과 부정문의 형태에 따라 3개의 소문단으로 구분된다. 첫째 소문단(신 17: 16-17)은 부정문의 형태로 표현되며,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직무를 언급한다. 둘째 소문단(신 17: 18-19)은 긍정문의 형태로 표현되며, 왕이 해야 할 직무를 다룬다. 셋째 소문단(신 17: 20)은 부정문의 형태로 표현되며, 왕의 직무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언급한다.

첫째 소문단(신 17: 16-17)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종류의 직무를 다룬다. 3종류의 부정적인 직무들은 모두 **רַב־דְּבָרִים**(로-야르베/그는 많이 두지 말라)라는 부정문과 함께 시작된다. 첫 번째 부정적인 직무를 다루는 첫째 단위(신 17: 16)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 단위는 직무 자체

4) 이러한 왕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는 신명기적 역사, 특히 삼상 8: 5, 19-20에 예코된다. 신명기 17장에 나타난 왕에 대한 요구와 삼상 8장에 나타난 왕에 대한 요구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정 석규, *윗글*, 54-59쪽.

(신 17: 16a)와 접속사인 **וְ**(레마안/...를 위하여)과 함께 시작되는 직무의 근거(신 17: 16b)로 구성된다. 직무 자체는 부정어 **לֹא**(로/...말라)와 함께 시작되는 두 개의 문장으로 표현되는데, 첫째 문장(신 17: 16aα)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일반적 표현인 반면, 둘째 문장(신 17: 16aβ)은 말을 얻기 위해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는 구체적 표현이다(참조 사 31: 1; 겔 17: 15 등). 이러한 종합 병행법을 통하여 첫째 단위는 말을 많이 두는 것이 왕이 금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금지 규정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신 17: 16b). 둘째 단위(신 17: 17a)는 왕이 금해야 할 직무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다룬다. 둘째 단위는 금해야 할 직무 자체(신 17: 17aα)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신 17: 17aβ)로 왕의 마음이 미혹하게 될 것을 언급한다. 셋째 단위(신 17: 17b)는 왕이 금해야 할 세 번째 직무로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언급한다. 이 단위는 직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는 앞의 두 단위들과는 달리, 직무 자체만 간단하게 언급된다.

수사학적이며 형식적인 측면에서 왕에 대한 세 가지 부정적인 직무는 구체적인 설명에서 점진적으로 단순하게 묘사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첫째 부정적인 직무(신 17: 16)인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금지는 간단한 금지 규정, 말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구체적 금지 규정, 그리고 금지 규정의 근거로 야웨의 명령임을 언급한다. 둘째 부정적인 직무(신 17: 17a)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금지는, 간단한 금지 규정에 덧붙여 예상되는 결과로 마음이 미혹하게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반면에 셋째 부정적인 직무(신 17: 17b)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금지는 간단한 금지 규정만을 언급한다. 이러한 점강법적인 묘사를 통하여 왕에 대한 부정적인 직무에 대한 설명은 점점 약화된다.

왕에 대한 부정적인 직무가 점점 약화되며 표현되다가 둘째 소문단(신 17: 18-19)에서 토라(율법)와 연관된 긍정적인 직무가 소개된다. 이 소문단은 직무의 실행 배경을 다루는 첫째 단위(신 17: 18a), 왕의 직무 자체를 논하는 둘째 단위(신 17: 18b-19a), 그리고 왕의 직무의 목적을 다루는 셋째 단위(신 17: 19b)로 구성된다. 왕의 직무를 실행하는 배경은 왕위에 올랐을 때이다. 그리고 왕의 구체적 직무는 레위계 제사장 앞에서 그 율법을 쓰

고, 그 율법의 사본을 읽는 것으로 설명된다.<sup>5)</sup> 왕의 직무에 대한 설명은 접속사 **וְ**(레마안/...를 위하여)과 함께 시작되는 그 직무의 목적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진다. 율법을 쓰고 읽는 목적은 율법에 순종하여 야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다.

셋째 소문단(신 17: 20)은 왕의 직무에 대한 결론적 언급이 부정문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 소문단은 둘째 소문단(신 17: 18-19)처럼 직무 자체(신 17: 20a)와 직무의 목적(신 17: 20b)으로 짜여진다. 왕의 직무를 다루는 첫째 단위(신 17: 20a)는 부정 전치사인 **לֹא**(레빌티/...하지 않고)로 시작되는 두개의 부정문의 형식으로 표현되며, 그 내용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과 야웨의 명령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규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 왕의 부정적인 직무(신 17: 16-17)와 연관되며, 야웨의 명령을 떠나지 말라는 규정은 왕의 긍정적인 직무(신 17: 18-19)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앞에 언급한 왕의 직무를 요약하며 결론 맺는 기능을 한다. 직무의 목적을 다루는 둘째 단위(신 17: 20b)는 접속사 **וְ**(레마안/...를 위하여)과 함께 시작되며, 그 내용은 영원한 왕조의 약속으로 묘사된다(참조. 삼하 7: 8-17). 그러므로 왕의 법을 다루는 본문은 왕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여 왕에 대한 직무로 마무리된다.

왕의 법을 다루는 본문은 왕에 대한 양면적 시각, 즉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왕을 세우는 절차를 다루는 본문의 첫째 대문단(신 17: 14-15)에서 열국과 같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상 8장과는 달리 어떤 부정적인 암시도 없이 묘사되고 있다. 사무엘상 8장은 백성들이 열국과 같이 왕을 요구하는 것(삼상 8: 5, 20)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삼상 8: 7)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색채도 없이 중립적, 또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왕의 자격(신 17: 15)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아래로부터 이스라엘의 백성 출신 가운데서 백성들이 세우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왕을 세우는 절차를 다루는 첫째 대문단(신 17: 14-15)은 왕을 중립적 또는 긍정적 직분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왕의 직무를 다루는 둘째 대문단(신 17: 16-20)의 분위기는 사뭇

5) 신 17: 19a에서 **כִּי**(보/그것을)이라는 구절에서 남성 접미사는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율법(토라)은 여성 명사이므로 그것은 왕이나 '율법의 사본'을 가리킨다. 문맥에서 볼 때, 율법의 사본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적합해 보인다.

다르다. 둘째 대문단은 왕이 금해야 하는 직무부터 언급한다(신 17: 16-17). 즉 왕은 말과 아내,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비록 이러한 3가지 부정적인 직무에 대한 묘사가 점강적으로 나타나다가 2가지 긍정적인 직무에 대한 묘사(신 17: 18-19)로 진행되지만, 이러한 직무들은 모두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즉 왕이 금해야 하는 3가지 직무는 고대 이스라엘이나 근동의 왕들이 갖고 있었던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왕이 율법을 쓰고 읽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직무도 야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왕의 권한이 제약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왕의 직무에 대한 결론적 언급을 다루는 부분(신 17: 20)에서도 언급됨으로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목적 또는 결과를 영원한 왕위를 보장하는 것과 연결시킴으로 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한다. 즉 본문은 왕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신 17: 20)는 다윗 왕조 신학(삼하 7: 8-17; 왕상 9: 4-5; 대상 28: 4-5)과 연결시킴으로 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그렇다면 왕에 대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두 가지 시각 모두를 내포한 왕의 법의 의도와 기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왕의 법을 다루는 본문의 전후문맥과의 관계 속에서 본문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텍스트는 문맥의 움직임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갖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전후문맥과 어우러져 독특한 의도와 기능을 드러내는 더 큰 텍스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 3.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의 문맥에서 왕의 법에 대한 이해

#### 1)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의 범위

신명기 법전(신 12: 1 - 26: 15)에 있는 법들이 십계명의 틀에 따라 배열되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을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제와 연관된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이해한다.<sup>6)</sup> 신명기의 율법들이 십계명의 틀로 배열되었다고 주장하지 않

6) D. T. Olson, *Deuteronomy and the Death of Moses: A Theological Reading*,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4), 62-125쪽; G. Braulik, “The Sequence of the Laws in Deuteronomy

더라도, 많은 학자들은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을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루는 주제적 동질성에 근거하여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한다.<sup>7)</sup>

학자들의 의견처럼,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내용과 형식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적절하다. 그 주제에 있어서,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다룬다: 1) 재판장(신 16: 18 - 17: 13), 2) 왕(신 17: 14-20), 3) 제사장/레위인(신 18: 1-8), 4) 선지자(신 18: 9-22). 신 16장 18절은 '재판장과 지도자'라는 새로운 주제를 언급함으로써 제의적 이슈들을 다루는 이전 단락(신 12: 2 - 16: 17)과 구별되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한다. 그리고 신 19장 1절 이하는 새로운 주제인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는데, 이 주제는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독립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 19장 1절 이하는 앞의 단락과 구분된다. 그러므로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루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문학적 단락이라 할 수 있다.

그 형식과 구조에 있어서도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은 정교하게 짜여진 문학적 단위이다. 이 단락을 구성하는 네 개의 문단들은 다음과 같이 서로 병행구조를 이루며 배열된다: 1) 재판에 대한 규례(신 16: 18 - 17: 13), 2) 왕에 대한 규례(신 17: 14-20), 3-1') 제사장의 뭇에 대한 규례(신 18:

---

12-26 and in the Decalogue," D. L. Christensen(ed.), *A Song of Power and the Power of Song: Essays on the Book of Deuteronomy* (SBTS 3), (Winona Lake: Eisenbrauns, 1993), 313-335쪽; 왕 대일, 「다시 듣는 토라: 설교를 위한 신명기 연구」(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1998), 284-90, 301-02쪽. 왕 대일은 이 책에서 신 12: 1-25: 19 가운데 12: 1-18: 22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직적 관계를 다루는 십계명의 1-5계명과, 19: 1-25: 19를 이스라엘 백성과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다루는 십계명의 6-10계명과 연관된다고 주장하고, 16: 18-18: 22는 십계명의 제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에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는 한 단락으로 이해한다. 한편, 밀러(Miller)도 신명기 율법을 십계명의 구조로 이해하지만, 19장까지 포함한 16: 18-19: 21을 십계명의 제 5계명과 연관하여 이해한다. P. D. Miller, *Deuteronomy* (I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140-154쪽.

7) A. D. H. Mayes, *Deuteronomy* (NC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9), 261-262쪽; E. Nielsen, *Deuteronomium* (HAT I.6), (Tübingen: J. C. B. Mohr, 1995), 173-187쪽; J. H. Tigay, *Deuteronomy*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159-178쪽; J. G. McConville, *Deuteronomy* (AOTC), (Leicester, England: Apollos, 2002), 280-285쪽; N. Lohfink, "Distribution of the Functions of Power: The Laws Concerning Public Offices in Deuteronomy 16:18-18:22," D. L. Christensen(ed.), *A Song of Power and the Power of Song: Essays on the Book of Deuteronomy* (SBTS 3), (Winona Lake: Eisenbrauns, 1993), 336-352쪽; M. O'Brien, "Deuteronomy 16.18-18.22: Meeting the Challenge of Towns and Nations," *JSCOT* 33 (2008), 155-172쪽.

1-8), 4-2') 선지자에 대한 규례(신 18: 9-22).

첫째 문단(신 16: 18 - 17: 13)과 셋째 문단(신 18: 1-8)은 몇 가지 면에서 서로 대응을 이룬다. 첫째, 두 문단은 모두 장소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성읍'을 언급한다(신 16: 18; 17: 2, 5; 18: 6). 둘째, 두 문단은 모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있는 레위계 제사장에 대하여 언급한다(신 17: 8-9; 18: 7). 셋째, 두 문단은 모두 지방 성읍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의 움직임을 언급한다(신 17: 8; 18: 6).

둘째 문단(신 17: 14-20)과 넷째 문단(신 18: 9-22)도 몇 가지 면에서 서로 병행을 이룬다. 첫째, 두 문단은 모두 장소적 배경과 관련하여 동일한 표현, 즉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언급과 함께 시작된다(신 17: 14; 18: 9). 둘째, 두 문단에서 언급하는 규례들은 모두 '다른 민족'과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된다(신 17: 14; 18: 9, 14). 셋째, 두 문단은 모두 지도자의 출신으로 "네 형제"를 언급한다(신 17: 15; 18: 15, 18). 넷째, 두 문단은 모두 세워진 지도자와 관련하여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다(신 17: 19; 18: 15-22). 그러므로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은 a-b-a'-b' 형태의 병행구조로 정교하게 짜여진 문학적 단락이라 할 수 있다.

## 2)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의 문맥 속에서 왕의 법의 의미와 의도

정당한 문학적 단위라 할 수 있는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의 의도 또는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이 단락을 주로 통시적 방법으로 분석한 의견이고, 둘째는 주로 공시적 측면에서 다룬 주장이다. 통시적 경향의 학자들은,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이 바벨론 포로기, 또는 포로 후기에 최종형태가 형성되었으며, 권력을 네 종류의 사회 지도자들(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분배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도한다고 주장한다.<sup>8)</sup>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로핑크(Lohfink)이다. 그는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은 "왕과 제사장 계급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약화시키고, 그 권력을 네 종류의 지도자들(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에

8) U. Rüterswörden, *Von der politischen Gemeinschaft zur Gemeinde. Studien zu Dtn 16,18-18,22* (BBB 65), (Frankfurt am Main: Atenäum, 1987); L. J. Hoppe, "Deuteronomy and Political Power," *TBT* 26 (1988), 261-66쪽; L. Stulman, "Encroachment in Deuteronomy: An Analysis of the Social World of the D Code," *JBL* 109 (1990), 613-632쪽; N. Lohfink, *윳글*, 336-352쪽.

게 분배함으로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의도하였다.”<sup>9)</sup>라고 주장한다. 그는 ‘토라’(율법)가 율법 제사장들에 의해 쓰였고 왕이 그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언급(신 17: 18-19)은 이 단락이 바벨론 포로기 때 최종 형태가 된 ‘신명기적 역대기’(the Deuteronomic Chronicle)와 연관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히면서, 이 단락의 율법은 역사에서 결코 실현되지 않았던 주요 권력들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헌법과 같다고 주장한다.<sup>10)</sup>

반면에 공시적 경향의 학자들은 이 단락이 언제 최종형태가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단락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sup>11)</sup> 공시적 경향의 학자 가운데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을 구체적으로 다룬 학자들로는 캐리에르(Jean-Marie Carrière)와 오브라이언(O’Brien)을 들 수 있다. 캐리에르는 로핑크처럼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을 이스라엘의 헌법으로 이해하지만, 이 본문을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읽기보다는 신명기서가 제시하듯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연설로 받아들인다.<sup>12)</sup> 그리고 이 규정을 출애굽 후 약속의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과 정치의 중요한 네 영역에서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오브라이언은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직면할 새로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sup>13)</sup> 즉 재판관과 제사장에 대한 규정(신 16: 18 - 17: 13; 18: 1-8)은 여러 성읍 가운데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림으로 아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며, 왕과 선지자에 대한 규정(신 17: 14-20; 18: 9-22)은 주위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토라에 순종하는 왕과 토라만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9) N. Lohfink, *윗글*, 349쪽.

10) *윗글*, 343-49. 율법(토라)라는 용어가 본문에 사용된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 부분이 포로기 때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G. E Gerbrandt, *Kingship According to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BLDS 87), (Atlanta: Scholars Press, 1986), 105쪽; U. Rüterswörden, *윗글*, 63쪽.

11) Jean-Marie Carrière, *La théorie du politique dans le Deutéronome. Analyse des unités, des structures des concepts de Dt 16,18-18,22* (Österreichische biblische Studien 18),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1); J. G. McConville, *윗글*, 280-85쪽; M. O’Brien, *윗글*, 155-72쪽.

12) Jean-Marie Carrière, *윗글*.

13) M. O’Brien, *윗글*, 155-172쪽.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을 하나의 문학적 단락으로 이해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록 그들의 학문적 경향(통시적/공시적)에 따라 그 단락의 의도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단락 안에 있는 왕의 법(신 17: 14-20)을 기본적으로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많은 학자들은 신 17장 14-20절에 나타난 왕에 대한 규정은 고대 근동과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 행사했던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 제사권 등을 다른 지도자들(재판관, 레위계 제사장, 선지자)에게 분배하고 왕도 율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묘사함(신 17: 18-19)과 동시에, 왕의 군사력(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신 17: 16), 정치외교력(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신 17: 17), 그리고 경제력(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신 17: 17)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sup>14)</sup>

왕의 법이 왕의 권한의 축소 및 제한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 법의 전후문맥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 16장 18절 - 18장 22절 단락에서 왕의 법은 선지자에 대한 규례(신 18: 9-22)와 그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병행된다. 병행되는 부분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됨으로 강조되는 것은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신 17: 18-19; 18: 15-22).

선지자에 대한 규례(신 18: 9-22)에서 수사학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선지자에 대한 규례는 크게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버리라는 규정을 다루는 첫째 소문단(신 18: 9-14)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규정을 다루는 둘째 소문단(신 18: 15-22)으로 구성된다. 이 두 소문단은 **שמע**(사마/듣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 첫째 소문단의 마지막 구절인 신 18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이방 민족들이 '듣는다'(**שמע**)고 언급되고, 둘째 소문

14) G. von Rad, *윳글*, 16, 120쪽; A. D. H. Mayes, *윳글*, 169-74쪽; P. D. Miller, *윳글*, 148-149쪽; J. G. McConville, *윳글*, 283-284쪽; N. Lohfink, *윳글*, 346-352쪽; M. O'Brien, *윳글*, 165-167쪽; B. M. Levinson, "The Reconceptualization of Kingship in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s Transformation of Torah," *V7* 51 (2001), 511-534쪽; Dutcher-Walls, Patricia, "The Circumscription of the King: Deuteronomy 17:16-17 in Its Ancient Social Context," *JBL* 121 (2002), 601-616쪽. 페트리샤는 위의 글에서 왕의 법(17: 14-20)을 사회과학적 비평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 법의 의도가 앗시리아의 봉신인 남유다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단의 첫 번째 구절인 신 18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한다'(שמעו)고 언급된다(참조 신 18: 16, 19). 연결어인 שמעו(사마/듣다)라는 동사를 통해 선지자에 대한 규례를 다루는 문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강조한다.

둘째 소문단(신 18: 15-22)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순종해야 하는(שמעו) 말씀이다. 이 소문단에서 דבר(다바르/말하다)라는 용어는 16회 반복됨으로 강조된다(신 18: 17, 18x2, 19x2, 20x4, 21x2, 22x5).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고(신 18: 18),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신 18: 19).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전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다(신 18: 20-22). 이와 같이 선지자에 대한 규례는 דבר(다바르/말하다)라는 용어의 반복을 통하여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말도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한다.

예언자에 대한 규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된다는 것은, 그것과 병행되는 왕에 대한 규례(신 17: 14-20)에서도 그 주제가 강조됨을 시사한다. 실제로 왕의 규례를 다루는 문단도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을 강조한다. 왕에 대한 규례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긍정적인 가르침(신 17: 18-19)은 왕이 금해야 할 부정적인 가르침들(신 17: 16-17, 20) 사이에 놓임으로 구조적으로 강조된다. 그러므로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의 문맥 속에서 왕의 규례(신 17: 14-20)는 왕을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하에 둠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고대 근동의 왕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인 힘을 가진 직분으로 묘사한다.

#### 4. 신 16장 18절 - 17장 20절의 문맥에서 왕의 법에 대한 이해<sup>15)</sup>

##### 1) 신 16장 18절 - 17장 20절의 범위

위에서 논한 것처럼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이 하나의 문학적 단락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지만, 몇 가지 면에서 의문점이 제기된다.

첫째는 이 단락의 주제적 통일성에 대한 것이다. 신 16장 18절 - 18장

15) 이 장(chapter)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제 3 장을 주로 근거로 한 것이다. 신 16: 18-17: 20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Seokgyu Jung, *The Judicial System in Ancient Israel: A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 of Exodus 18:1-27, Deuteronomy 16:18-17:20, and 2 Chronicles 19:1-11* (Ph.D. Diss.,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1), 130-211쪽.

22절이 하나의 문학적 단락이라는 중요한 근거는 이 단락이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과 정치 영역의 지도자들의 권리와 의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18장 1-8절에 있는 레위계 제사장들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신 17장 8-20절에서 레위 제사장들은 정치 또는 사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지도자로 묘사되는 반면에, 신 18장 1-8절에는 지도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그들의 분깃에 대하여만 언급한다.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가르침(18: 1-8)은 신 16장 18절 - 17장 20절에 나타난 사법제도 또는 지도자에 대한 주제보다는 오히려 신 19장 1-13절에 나타난 도피성에 대한 가르침과 연관된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살던 도성 가운데 있었고(참조. 수 21장; 대상 6장), 레위성들은 어떤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에게 삶의 처소로 주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규정(18: 1-8)은 재판관과 왕에 대한 규정(16: 18-17: 20)보다는 도피성에 대한 규정(신 19: 1-13)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 문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볼 때, 사법, 또는 정치적 지도자를 다루는 신 16장 18절 - 17장 20절은 제의적이며 종교적인 이슈를 다루는 이전 단락(신 12: 2 - 16: 17)과 구분되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법들을 다루는 이후의 단락(신 18: 1 - 19: 13)과도 구분되는 문학적 단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재판관에 대하여 다루는 문단(신 16: 18 - 17: 13)과 왕에 대한 규례를 다루는 문단(신 17: 14-20) 사이의 연관성은 형식적인 특징과 연결어들을 통하여 드러난다. 왕의 규례를 다루는 문단의 중요 주제어는 '토라(תּוֹרָה)'이다(신 17: 18, 19). 이 용어는 신명기 법전(신 12-26장)에서 왕에 대한 규례를 제외하고 재판관에 대하여 다루는 문단에만 등장한다(신 17: 11). 그러므로 '토라(תּוֹרָה)'라는 용어는 재판관에 대한 규례와 왕에 대한 규례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 두 문단 사이의 연관성은 재판관에 대한 규례 가운데 법 실행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언급하는 소문단(신 16: 18 - 17: 1)과 왕에 대한 규례(신 17: 14-20) 사이에 존재하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의 병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두 문단은 모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이라는 종속절을 포함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지침으로 시작된다(신 16: 18; 17: 14-15). 이어서

임명된 지도자의 직무와 연관된 내용이 나타난다(신 16: 19-17: 1; 17: 16-20). 이것은 왕에 대한 규정(신 17: 14-20)이 법 실행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신 16: 18 - 17: 1)과 구조적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재판관에 대한 규례와 왕에 대한 규례가 서로 연관된다는 것은 본문 자체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특징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신 17장 2-20절에 있는 문학적 단위들(신 17: 2-7, 8-13, 14-20)은 접속사 **כִּי**(키, 17: 2, 8, 14)의 연속적인 반복을 통하여 서로 연결된다. 신 16장 18절 - 17장 20절의 첫 번째 문단인 신 16장 18절 - 17장 1절은 사법제도 또는 재판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이 단락은 접속사 **כִּי**(키) 바로 앞에서 끝난다. 반면에 그 후에 나오는 3개의 문단들(신 17: 2-7, 8-13, 14-20)은 접속사 **כִּי**(키)의 세 번의 반복을 통하여 연결된다. 비록 이 접속사가 모두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sup>16)</sup> 이러한 동일한 접속사의 반복은 이 접속사와 함께 시작하는 각 문단들의 외형적인(formal) 연결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비록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을 하나의 문학적 단락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신 16장 18절 - 17장 20절도 내용적이며 형식적인 면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정당한 문학적 단락이라 이해할 수 있다.

## 2) 신 16장 18절 - 17장 20절의 문맥에서 왕의 법의 의미와 의도

사법제도 또는 정치 지도자에 대하여 다루는 신 16장 18절 - 17장 20절은 핵심어 **כִּי**(키, 17: 2, 8, 14)가 반복되는 부분과 이 접속사로 시작되지 않는 부분으로 크게 두 개의 대문단으로 구성된다: 1) 법 실행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신 16: 18 - 17: 1), 2) 법 실행을 위한 세 단계(신 17: 2-20). 여기서 첫째 대문단은 둘째 대문단에서 언급하는 법 실행을 위한 세 단계의 절차에 대한 기본적 원리로 공의와 정의를 언급한다. 둘째 대문단은 접속사 **כִּי**(키)와 함께 시작되는 3개의 소 문단으로 구성된다: 1) 지방 법정에서의 사법 절차(신 17: 2-7), 2) 중앙 법정에서의 사법 절차(신 17: 8-13), 3) 최고의 재판관인 왕을 세우는 절차(신 17: 14-20). 즉 접속사 **כִּי**(키)로 시작되는 3개의 소 문단은 지방 법정에서 시작하여 중앙 법정을 경유하여 최

16) 신 17: 2와 17: 8에서 **כִּי**(키)는 조건절을 소개하는 접속사(前)로 사용되지만, 신 17: 14에서 **כִּי**(키)는 시간을 나타내는 절을 소개하는 접속사(when)로 사용된다. 참조 R. L. Harris(ed.),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 1980), 437-438쪽.

고의 재판관 또는 지도자로 흘러가는 3단계의 절차를 보여준다.

이러한 3단계의 절차를 다루는 3개의 소문단 가운데 왕의 법을 다루는 소문단(신 17: 14-20)은 최고의 재판관 또는 지도자에 대한 규정과 연관된다. 비록 왕에 대한 규정에는 왕의 사법적인 역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sup>17)</sup> 접속사 וְ(키)를 통한 앞 문단과의 연결은 중앙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관인 왕으로 올라가는 법적 절차를 전제한다. 왕을 재판관으로 이해하는 것은 왕에 대한 규정(신 17: 14-20)이 지방의 재판관을 세우는 규정(신 16: 18 - 17: 1)과 같은 구조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형식상의 병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둘째 대문단(신 17: 2-20)은 지방 법정에서 시작하고(신 17: 2-7) 중앙 법정을 경유하여(신 17: 8-13) 최고의 재판관인 왕으로 진행되는 중앙 집권적 사법제도의 모습을 보여준다.<sup>18)</sup> 이러한 흐름에서 왕의 법은 왕의 권한을 제한하기보다는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왕이 금해야 할 직무를 통하여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17장 16-17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부분은 일반적인 왕의 직무를 언급하기보다는 왕상 10-11장에 묘사된 솔로몬의 통치와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참조. 삼상 8: 11-17). 왜냐하면 신 17장에 있는 왕의 부정적인 직무는 그 주제와 용어에 있어서 왕상 10-11장에 언급된 솔로몬의 통치와 직,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규정(신 17: 16)은 솔로몬이 말을 애굽에서 수입한 사건과 관계된다(왕상 10: 26-29). 아내를 많은 두지 말라는 규정(신 17: 17a)도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사건과 연관된다(왕상 11: 1-4).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규정(신 17: 17b)도 많은 은금을 소유했던 솔로몬의 부와 관련이 있다(왕상 10: 14-17, 21-25).

그러나 신 17장 16-17절에 나타난 왕이 금해야 할 규례와 왕상 10-11장

17) 왕이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언급(신 17: 18-19)은 그 율법에 따라 판결하는 재판관으로 왕 자신도 그 율법의 권위하에 있음을 보여줌으로 재판관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참조. 대하 19: 10).

18) 지방에서 사법 관리로 임명된 재판관(סֹפֵר)과 지도자(מִשְׁטֵר), 중앙에서 사법 관리로 활동하는 레위계 제사장과 재판장, 그리고 최고의 재판관인 왕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관리들이 사법 영역에 있어서 왕에 의해 임명되고 통제되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드러낸다. 참조 M. Weinfeld, "Judge and Officer in Ancient Israel and in Ancient Near East," *Israel Oriental Studies* 7 (1977), 65-88쪽.

에 묘사된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기사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신명기 17장과는 달리,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묘사에서는 말을 많이 둔 것이나 은금을 많이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주신 축복의 문맥에서 나타난다(참조. 왕상 3: 13; 10: 23-25). 그리고 아내와 연관된 규례에서도 왕상 11장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자체보다는 '이방의 아내'를 둔 것을 비판하나, 신 17장은 그것을 일반화시켜 아내의 출신에 관계없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현재 형태의 텍스트의 순서에 따라 신 17장에 나타난 왕의 규례에 근거하여 솔로몬의 행적이 평가된 것이라면, 솔로몬이 은금과 말을 많이 둔 것에 대하여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 17장의 규정과는 다르게 왕상 10장에서 솔로몬의 행적이 긍정적으로 언급된 것은, 신 17장에 나타난 왕의 규례가 솔로몬의 행적에 대한 전체가 아니라 솔로몬 사건 이후에 형성된 것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신 17장 16-17절에 나타난 왕의 부정적 규례는 솔로몬의 행적에 대한 이후의 평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 17장 16-17절이 솔로몬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실정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잘못은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원인과 관계된다. 신 17장 16-17절은 이러한 솔로몬의 실정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왕에게 다시는 '제 2의 솔로몬'이 되지 말 것을 요청한다.<sup>19)</sup> 즉 새로운 왕에게 솔로몬의 실정으로 인해 야기된 왕국의 분열을 회복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시 연합할 수 있는 왕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 17장에 묘사된 부정적인 왕의 직무는 왕에게 솔로몬의 실정을 극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 17장 18-19절에 언급하는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왕의 직무도 율법의 통치 하에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솔로몬의 실정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율법에 순종하면 왕위가 장구하리라는 내용을 다루는 신 17장 18-20절은 왕상 2장 2-4절에서 언급되는 솔로몬에게 주어진 왕조에 대한 조건적 약속과 연관된다(참조

19) A. C. Welch, *The Code of Deuteronomy: A New Theory of Its Origin*, (London: Clarke, 1924), 126쪽.

왕상 9: 4-9).<sup>20)</sup> 각 구절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의 조건으로 언급한다. 그리고 각 구절들에는 아래와 같은 용어들이 반복된다: **תורה**(토라/율법, 신 17: 18, 19; 왕상 2: 3), **שמר**(사마르/지키다, 신 17: 19; 왕상 2: 3, 4), **פח**(호크/규례, 신 17: 19; 왕상 2: 3), **נספ**(키세/왕위, 신 17: 18; 왕상 2: 4), **למען**(레마안/...를 위하여, 신 17: 20; 왕상 2: 4).

왕상 2장 2-4절은 다윗이 임종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형통함을 가져올 것이고, 자신의 뒤를 계승하는 영원한 다윗 왕조의 왕이 되는 정당성을 부여할 것임을 언급한다. 즉 율법에 대한 순종은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다윗을 계승하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통치권과의 관계는 신명기적 역사의 다른 부분에서도 언급된다. 수 1장 7-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읽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형통하게 되는 길임을 말씀하신다. 여기서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왕하 22-23장에 묘사된 요시아의 통치에 대한 기사에서도,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을 요시아가 백성들 앞에서 읽고 그 율법에 순종할 것을 다짐한 것은 백성들도 그 율법에 순종하라는 요청과도 같은 것이었다(왕하 23: 2-3).<sup>21)</sup>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있어서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은 그 지도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그 지도자가 그의 백성들을 그 율법에 따라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 17장 14-20절에 언급된 왕에 대한 규례는 신 16장 18절 - 17장 20절의 문맥 속에서는 왕의 권한을 제한하기보다는 왕에게 최고의 통치자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백성들의 요청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이스라엘 출신 가운데서 왕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신 17: 14-15) 뿐만 아니라, 왕이 많이 두지 말

20) 신 17: 18-20과 왕상 2: 2-4는 아웨의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지는 약속을 강조하지만, 왕상 9: 4-9는 약속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주어지는 징벌을 강조한다.

21) 요시아의 통치 기사에서, 요시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에 순종한 자로 그려진다(왕하 22: 2; 참조, 왕하 23: 25). 이 표현은 신 17: 20과 병행된다(참조, 수 1: 7). 이러한 예코는 요시아 통치와 신 17: 18-20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한다.

아야 할 것을 말하는 부정적 직무(신 17: 16-17)와 율법에 순종하면 장구한 왕위를 보장한다는 조건적 약속(신 17: 18-20)은 모두 왕에게 솔로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하여 성공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5. 나가는 글

본 논문은 신 17장 14-20절에 나타난 왕의 법의 이중적 기능에 대한 연구이다. 이 텍스트에 묘사된 왕의 법은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소(신 17: 16-19)를 통하여 왕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왕이 백성들의 요청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서 세워질 직분(신 17: 14-15)임을 언급함으로써 왕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표현한다. 이러한 왕 제도에 대한 양면적 시각은 왕의 법이 포함된 더 큰 문맥의 흐름 속에 이해할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재판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 대하여 다루는 신 16: 18-18: 22에서 왕에 대한 규례(신 17: 14-20)와 선지자에 대한 규정(신 18: 9-22)은 그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병행을 이룬다. 병행되는 부분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세워진 지도자인 왕과 선지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17: 18-19; 18: 15-22). 그러므로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의 문맥 속에서 왕의 법(신 17: 14-20)은 이전의 왕이 갖고 있었던 여러 분야의 권력(군사력, 정치외교력, 경제력)을 제한하고 왕을 율법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왕을 매우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 직분으로 묘사한다.

반면에 신 16장 18 - 17장 20절의 문맥 속에서 왕의 법은 왕의 권한을 제한하기보다는 왕에게 최고의 통치자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왕의 법(신 17: 14-20)은 접속사 𐤀(키)의 반복(신 17: 2, 8, 14)을 통하여 재판에 대한 규정(신 16: 18-17: 13)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외형적 연결은 지방 법정(신 17: 2-7)에서 중앙 법정(신 17: 8-13)을 거쳐 왕(신 17: 14-20)에게 이르는 점층적인 단계를 통하여 왕을 최고의 재판관 또는 지도자로 드러낸다. 또한 왕이 금해야 하는 부정적 직무(신 17: 16-17)와 왕이 율법에 순종하면 장구한 왕위가 보장된다는 조건적 약속(신 17: 18-20)은 일반적인 언급이라기보다는 신명기적 역사에서 모두 솔로몬의 통치와 연관되어 이해된다. 이를 통하여 왕의 법은 왕에게 솔로몬의 실패

를 반면교사로 하여 성공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정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신 16장 18절 - 18장 22절의 문맥과 신 16장 18절 - 17장 20절의 문맥 속에서 왕의 법이 각기 다른 강조점을 드러내는 이유를 그것의 편집의 역사와 연관하여 다루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그것이 무의미한 작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면의 한계와 본 연구자의 학문적 부족함 때문이다. 아마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이 두 본문이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형성 또는 편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연구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본 연구는 하나의 텍스트가 단 하나의 의도와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의미(multiple meanings or intentions)를 내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텍스트의 특징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에게 유의미할 수 있는 해석의 선택과 자유를 어느 정도 부여한다. 성서가 주는 이러한 해석의 자유는 현재 독자들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대에 씌어졌던 텍스트를 지금도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살아있는 말씀되게 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 연구가 과거에 씌어진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되게 하는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 7. 참고문헌

- 왕 대일, 「다시 듣는 토라: 설교를 위한 신명기 연구」(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1998).
- \_\_\_\_\_, “성서해석에 있어서 Intertextuality의 활용,” 「구약논단」 제 9집 (2000년 10월), 9-38쪽.
- 정 석규, “신명기 17:14-20의 Intertextuality를 통한 해석,” 「구약논단」 제 11집 (2001년 10월), 49-70쪽.
- Åhlstrom, G. W., *Royal Administration and National Religion in Ancient Palestine*, (Leiden: E. J. Brill, 1982).
- Braulik, G., “The Sequence of the Laws in Deuteronomy 12-26 and in the Decalogue,” D. L. Christensen (ed.), *A Song of Power and the Power of Song: Essays on the Book of Deuteronomy* (SBTS 3), (Winona Lake: Eisenbrauns, 1993). 313-35쪽.
- Carrière, Jean-Marie., *La théorie du politique dans le Deutéronome. Analyse des unités, des structures des concepts de Dt 16,18-18,22*

- (Österreichische biblische Studien 18),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01).
- Duke, R. K., "The Portion of the Levite: Another Reading of Deuteronomy 18:6-8," *JBL* 106 (1987), 193-201쪽.
- Dutcher-Walls, P., "The Circumscription of the King: Deuteronomy 17:16-17 in Its Ancient Social Context," *JBL* 121 (2002), 601-16쪽.
- Gerbrandt, G. E., *Kingship According to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BLDS 87), (Atlanta: Scholars Press, 1986).
- Harris, R. L.(ed.),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 1980).
- Hoppe, L. J., "Deuteronomy and Political Power," *TBT* 26 (1988), 261-266쪽.
- Jung, Seokgyu, *The Judicial System in Ancient Israel: A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 of Exodus 18:1-27, Deuteronomy 16:18-17:20, and 2 Chronicles 19:1-11*, (Ph.D.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1).
- \_\_\_\_\_, "Intertextuality between the Laws of Kingship in Deut 17:14-20 and the *Torat ham-Melek* of the Temple Scroll,"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vol. 51 (2007), 65-80쪽.
- Levinson, B. M., "The Reconceptualization of Kingship in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History's Transformation of Torah," *VT* 51 (2001), 511-534쪽.
- Lohfink, N., "Distribution of the Functions of Power: The Laws Concerning Public Offices in Deuteronomy 16:18-18:22," D. L. Christensen(ed.), *A Song of Power and the Power of Song: Essays on the Book of Deuteronomy*(SBTS 3), (Winona Lake: Eisenbrauns, 1993). 336-352쪽.
- Mayes, A. D. H., *Deuteronomy* (NC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9).
- McConville, J. G., *Deuteronomy* (AOTC), (Leicester, England: Apollos, 2002).
- Miller, P. D., *Deuteronomy* (I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Nielsen, E., *Deuteronomium* (HAT I.6), (Tübingen: J. C. B. Mohr, 1995).
- O'Brien, M., "Deuteronomy 16.18-18.22: Meeting the Challenge of Towns and Nations," *JSOT* 33 (2008): 155-72쪽.
- Olson, D. T., *Deuteronomy and the Death of Moses: A Theological Reading*,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4).
- Rüterswörden, U., *Von der politischen Gemeinschaft zur Gemeinde. Stu-*

- dien zu Dtn 16,18-18,22* (BBB 65), (Frankfurt am Main: Atenäum, 1987).
- Stulman, L., "Encroachment in Deuteronomy: An Analysis of the Social World of the D Code," *JBL* 109 (1990), 613-32쪽.
- Tigay, J. H., *Deuteronomy*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 Tucker, G. M., "Deuteronomy 18: 15-22," *Interpretation* 41(1987), 292-297쪽.
- Von Rad, G., *Deuteronom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1966).
- Weinfeld, M., "Judge and Officer in Ancient Israel and in Ancient Near East," *Israel Oriental Studies* 7 (1977), 65-88쪽.
- Welch, A. C., *The Code of Deuteronomy: A New Theory of Its Origin*, (London: Clarke, 1924).

#### 검색어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구조분석 방법  
신 16장 18절 - 18장 22절  
신 17장 14-20절  
왕의 법

투고일: 2009년 10월 14일  
심사일: 2009년 10월 19일  
게재 확정일: 2009년 12월 3일

---

## Dual Functions of the Law of Kingship in Deut 17:14-20

---

**Seokgyu Ju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expose the dual functions of the law of kingship in Deut 17: 14-20 by a structural analysis on the text itself and in relation to its larger contexts. In the extant form of Deut 17: 14-20, the regul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king(17: 14-15) justifies the institution of kingship by the people's designation and divine approval. However, the regulations of the duties of a king(17: 16-20) explicitly function to restrict the royal prestige by mentioning a list of prohibitions imposed on the king (17: 16-17), and the torah that should be read and observed by the king(17: 18-20). Thus, the present form of Deut 17: 14-20 unveils both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on kingship.

In the larger context of Deut 16: 18 - 18: 22, the law of kingship functions to restrict the monarchic power within both ancient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The regulations in Deut 16: 18 - 18: 22 demonstrate decentralization and distribution of power through limiting the power and prestige of the authorities under the torah: judges/officials(16: 18 - 17: 13), the king(17: 14-20), priests/Levites(18: 1-8), and the prophet (18: 9-22). In the larger context of Deut 16: 18 - 18: 22, thus, the law of kingship regards

the king as an authority controlled under the torah actualized as the will of God.

In the larger context of Deut 16: 18 - 17: 20, however, the law of kingship functions to legitimate royal administrative authority. Deut 16: 18 - 17: 20 can be regarded as a legitimate literary unit. The successive appearances of the conjunctive particle, **וְ**(17: 2, 8, 14), explicitly unveil how the judicial procedure shifts from the local court (17: 2-7) to the highest centralized authority(17: 14-20) via the higher court(17: 8-13). In relation to its larger context of Deut 16: 18 - 17: 20, the negative tasks of a king(17: 16-17) postulate a new royal task to restore the divided kingdom caused by Solomon's erroneous policies by providing a counter-model against Solomon. Also, the positive tasks of a king (17:18-20) provide the monarchy with a divinely authorized legitimacy to administer the people under the torah. In the context of Deut 16: 18 - 17: 20, therefore, the law of kingship (17: 14-20) can be understood within a positive perspective on kingship.

**Keywords**

Deut 16:18-18:22

Deut 17:14-20

Law of Kingship

Leaders in Ancient Israel

Structural Analysis